

기도

1. 예수님을 통해 새로워지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2. 담임 목사님과 교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눔

1.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스스로나 다른 이들을 정죄한 적이 있습니까?
2. 나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까?

신앙

하시딤과 바리새인

'하시딤'은 기원 전 2세기경, 엄격한 율법주의 생활에 힘썼던 유대인들을 가리킨다. 당시 이스라엘 지방을 다스리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는 유대인들을 헬라화하기 위해 자신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유대인들을 박해했다. 하시딤은 이와 같은 핍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율법대로 섬기기 위해 힘썼던 경건한 자들이었다.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하시딤의 정신을 계승한 자들이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외적인 의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특권 의식에 빠지게 되면서 변질되었다. 그리고 율법의 문자적 실천을 통해 의롭게 된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전통을 내세우며 율법 준수를 외면하였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경계하고 바리새인들처럼 되지 않기 위해 힘써야 한다.



새 것이 되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와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사야 2장 2-4절)



새 것이 되라

누가복음 5장 31-36절 (찬27장, 337장)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세리와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처럼 금식하지 않느냐 정죄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향해 비유로 말씀하시며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찾아오셨다는 말씀입니다(31-32절).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죄를 전가 받아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의 아래 있고, 선을 행하는 자나 의를 행하는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전7:20, 롬3:9-12). 그리고 그 죄는 이 세상의 무엇으로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31-32절). 이처럼 예수님께서서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참된 의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영은 거듭나고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아직 거듭나지 못했고, 아직 죄의 본성이 남아있습니다. 때문에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사망과 어둠의 권세 아래에서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죄를 회개시키시고 고쳐주시기 위해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가 영적으로 병든 자임을 깨닫고,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병들었음에도 의사를 찾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병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나아가면,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고 변화되어 날마다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새 것이 되라는 말씀입니다(33-36절).

바리새인들은 육신의 행위들로 자신들이 깨끗해지고 새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라며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죄했습니다(33절). 그 때에 예수님께서서는 “혼인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35-36절). 이는 우리가 새로워지고 변화되어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양하기 위해서는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함을 뜻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금식의 목적은 예수님을 찾는 것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새로워지지 않으면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36절). 새 옷은 복음을, 낡은 옷은 복음 없이 하는 신앙생활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고 그 말씀을 통해 새로워지게 됨을 의미합니다.

바리새인들에게도 신령한 은사와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힘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병든 자들이었지만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가리는 자들이 되었고 변화와 생명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힘쓰시고, 예수님을 만나 새 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맺 음 말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 새 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병들었음에도 의사를 찾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죄를 전가받은 죄인이자, 육신의 몸을 입고 끊임없이 죄를 지을 수 밖에 없는 병든 자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를 깨닫고 죄인을 위해 오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고쳐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새로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새 옷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새로워져야 말씀의 능력이 임하고 그 말씀을 깨달아 복음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병든 자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새로워질 때 놀라운 변화와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